기아차 새해 벽두부터 파업?

노사 임금협상 연내 타결 무산… "지역경제 찬물" 우려 목소리

기아자동차 노조가 새해 벽두부터 파업 투쟁을 벌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댔으나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밤 늦게 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사측은 올해 마지막 협상에서 일시금 지급규모를 다소 늘린 수정안(경영성과 달성 성과금 300%+460만원)을 제시하며 연내 타결을 위한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잠정합의를 이루더라도 조합원 대상 설명회와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타결은 어렵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아차가 31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게 돼 찬반투표를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의 연내 임금 협상 타결이 무산됨에 따라 지역 경제계에선 기아차가 연초부터 파업투쟁 등을 벌여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연내 타결을 위해 수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28일 교섭에서 현금 100만원을 추가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300%, 현금 400만원'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현대차(기본급 동결, 성과급 300%, 현금 500만원, 주식 40주 지급)와 견줄만한 조건을 내놓으라며 맞섰다. 28일에는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상경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사측은 "현대차의 타결 조건 가운데 100만원과 주식 40주는 올해 무파업에 대한 대가"라며 7월 파업을 벌인 기아차 노조에 무파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계 인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 생존을 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기아차마저 노사관계가 불안해진다면 큰 일"이라며 빠른 임금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신세계, 전국매장 중 고객만족 1위

광주신세계가 30일 신세계 영등포점에서 열린 신세계 고객만족시상식에서 고객만족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전국 신세계 백화점 8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된 고객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광주 신세계는 매주 서비스 포럼 실시, 영수증 확인 서비스 등을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신세계는 오전 일찍 직원 개개인의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상기할 수 있는 '인사하기 캠페인'을 실시, 그에 어울리는 노래와 동작을 만들어 전국 신세계 점포에 보급하기도 했다.〈사진〉

이장환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백화점인 신세계에서도 가장 서비스가 좋은 점포로 뽑히게 돼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세계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이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한국표준협회의 한국 서비스 대상, 한국능률협회 고객만족도 1위 등 백화점 업계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 관련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中企 "내년 경기 개선"

1월 자동차·가전·반도체 수출 호조 기대

광주·전남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은 내년 1월 생산활동과 경영여건 등이 올해보다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 코스피지수	1,682.77 (+10.29)
▲ 코스닥지수	513.57 (+7.96)
▲ 금리 (국고채 3년)	4.41% (+0.02)
▼ 원·달러 환율	1,164.50원 (-6.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전남 지역 중소 제조업체 105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0년 1월 중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89.2로 전달(88.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는 대출 만기 연장 등 중기 지원 비상조치가 연장되고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판매 및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해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SBHI를 보면 자금SBHI(85.1→83.8)를 제외한 생산(89.0→89.2), 내수(83.2→87.1), 수출(85.2→88.9), 경상이익(83.2→86.3) SBHI가 전달보다 모두 상승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생산활동 및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설비 수준(104.5→102.9)은 소폭 하락해 과잉상태 개선, 제품재고수준(99.0→100.0)은 전달보다 소폭 상승해 과잉수준 지속, 고용수준(101.0→99.5)은 전달 대비 하락해 인력부족 수요 증가 등으로 각각 전망했다.

복수 응답한 12월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55.6%)과 원자재 가격상승(5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금조달 곤란(40.4%), 업체 간 과당경쟁(39.4%), 판매대금 회수 지연(30.3%), 제품 단가 하락(24.2%), 인력확보 곤란(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 제조업 회복세

광공업 등 생산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늘고, 재고량은 감소하는 등 지역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1월 광주·전남 광공업생산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에서 광주와 전남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6%, 19.8%가 수직 상승했다. 광주는 자동차(23.8%)와 전자제품 및 영상음향통신(69.7%), 전기장비(60.7%) 등에서, 전남은 화학제품(38.9%)과 금속가공(73.5%), 식료품(91.4%) 등에서의 생산이 크게 늘었다.

생산이 늘면서 수출이나 내수를 위한 출하량도 광주·전남 각각 16.8%, 15.8% 증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경매시장 '후끈'

올 광주 낙찰액 3,191억 몰려
전남 아파트 물건 4만건 넘어

올해 광주·전남 지역 경매시장이 전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2009년 광주지역 경매시장은 지난해보다 낙찰총액이 226억원이 늘어난 3천191억원이 몰렸다.

올 한해(12월 15일 기준) 광주지역에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차량·중기·선박, 광·어업권 등 권리권 제외)은 총 8천256건으로 이 가운데 2천698건이 낙찰돼 낙찰률 32.7%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월별 진행 물건 수는 3, 6월에 급증했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로 말미암아 임대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나왔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응찰자 수는 지난해 3.5명에서 3.8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낙찰가율도 지난해(58.8%) 보다 소폭 상승해 60.5%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에서 감정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남구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아파트(155.6㎡)로 4억6천만원을 기록했고 최고 낙찰가율은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아파트(85㎡)로 감정가 9천700만원에 낙찰가 1억5천만원으로 155%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은 아파트 경매 건수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1만1천여건에 달하면서 전체 건수가 4만건을 처음 돌파했다.전체 물건 수(12월 15일 기준)는 4만1천611건으로 이 가운데 1만4천298건이 낙찰돼 낙찰률 34.4%를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